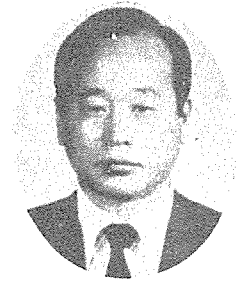


낙농 시책방향



농수산부낙농과
이인형 과장

1. 머릿말

최근에 건강식품, 자연식품이라는 명목아래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식품이 시중에는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건강 및 장수를 위한 식품,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업자는 소비자의 심리를 100% 이용하는 상술 또한 감탄할 만큼 발달한 것 같다.

물론 건강에 좋다는 자연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겠으나 빠른 시일내에 국민의 식품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다.

지방분이 전혀없는 식품이 좋다느니, 순채식을 하여야 한다느니 하는 것들은 필요한 몇사람의 얘가지 우리에게는 생각도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1은 우리나라 식생활 환경하에서의 식품별 섭취권장량으로서 그 결과를 보면 곡류와 김치류는 과거에 관습 그대로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물론 다른 식품을 많이 이용하려 하며는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치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

우가 많겠으나 우유의 경우에는 가장 낮아 권장량에 5% 밖에 안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낙농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낄수가 있을 것이다.

〈표 1〉 79년도 식품권장량과 섭취량(국민 1인당 1일)

구	분	권장량(A)	섭취량(B)	B / A
곡	류	395 g	478 g	121 g
감	자	79	27	34
기	름	24	4	17
고기 및	생선류	131	108	82
우	유	209	10	5
록	색	137	24	18
김	치	229	265	116
과	실	92	28	30

또한 동남아 몇나라의 영양공급량을 분석하여 보면 경제상황이 가장 좋았던 78년의 동향을 기준으로 하여도 우리의 환경하에서는 너무나 자연식품에 대한 편견과 선전이 앞서고 있는것 같다.

78년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일 동물성식품이 열량은 9.1%, 단백질은 25.2%인데, 비하여 일본은 열량은 15% 단백질은 36.9%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때 특수계층에게나 필요할지 모를 상황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강한 후 세대를 위한 꾸준한 식생활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낙농사업과 유제품 생산공급 및 품질개선은 어느 식품보다도 가장 중요한 품목이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성장시켜야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표 2〉 주요국별 영양공급량비 (1인 1일)

국 별	열 량 구 성 비		동물성 단백질 구성비	기름류 구성비
	전분식품	동물성식품		
한 국	79.3%	9.1%	25.2%	36.8%
일 본	51.0	15.0	46.4	51.8
인 도	68.0	5.0	12.0	44.0
필 리 핀	64.0	12.0	35.3	30.4
대 만	57.0	18.0	37.5	34.3
뉴질랜드	27.0	49.0	69.5	12.4
미 국	22.0	38.0	70.4	38.4

2. 유제품의 생산 상황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국민 1인당 우유소비량이 5kg전후인 75년경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던 것은 잘못된 없을 것이다.

이때부터 우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소비가 급증하였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나 우유를 소비하였는가 하면 노약자 및 환자의 급속한 건강 회복을 위한 보약으로서 이용되었는 것도 사실이다.

표 3을 보면 75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82년도 까지 발효유와 아이스크림이 가장 높은 신장을 하였으나 초창기에는 조제분유와 같이 급격한 소비가 증가 하다가 최근에와서 둔화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시유는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유제품 생산 동향

구 분	75년도	'80	'82	82 / 75
우 유 생 산	160千M/T	452	576	360 %
시 유	116千M/T	279	427	368 %
조 제 분 유	7千M/T	17	18	257 %
발 효 유	8千M/T	98	104	1,300 %
아 이 스 크 림	4千M/T	52	27	675 %
1인당소비량	4.6kg	11.0	14.5	315 %
고기류 1인당소비량	6.0kg	10.2	11.3	188 %

또한 고기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도 비교하여 볼때 국민 1인당 소비량에 있어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증가를 하여 왔든 것이다.

이러한 낙농업의 성장을 이룩한데에는 그동안 낙농가의 꾸준한 노력과 유업체를 이끌어온 관계자들의 힘이 가장 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초지조성사업을 매년 3~4천ha씩 추진하여 왔으며 젖소를 매년 5~20천두 내외를 도입하여 젖소증식에 힘을 기울여 왔든 것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의 소 사육두수는 감소하였다. 가격등 여건이 좋으면 증가하는 등 기복이 심하였으나 젖소사육두수는 정부의 계속적인 우유가격의 적정선유지와 기반구축을 위한 조사로 생산기반 확대 및 젖소의 도입 분양인식사업등의 추진으로 82년말에는 젖소(비육용젖소 숫소는 제외) 사육두수는 228천두에 달하게 되었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낙농업계에는 낙농가의 경영 및 관리 개선에 의한 생산비 절감, 유업체의 제품 다양화와 품질개선 및 유통개선등 많이 개선하여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이다.

3. 시책 방향

젖소를 사육하고 우유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는 반면 국민체위향상 및 식생활개선을 위한 국민 전체

를 위한 사업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낙농기반구축의 확대를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국민 모두가 유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산지초지의 개발, 젖소의 수입분양 및 자금의 지원과 학교아동우유 급식실시 및 우유소비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낙농기반구축 사업현황

구 분	75 년 도	'78	80	81	82
젖 소 사 육 두 수	86천두	136천두	180천두	194 천두	228천두
젖 소 도 입 두 수	777두	21,900두	4,390두	- 두	9,507두
초 지 조 성	4,169ha	5,536ha	3,125ha	3,052ha	6,965ha
답이작사료작물재배	14,099ha	13,329ha	37,696ha	36,162 ha	43,444ha

가. 낙농기반확대사업

현재의 전국초지면적은 82년말기준으로 58천ha에 달하고 있으나 금후 지속적인 낙농발전을 위하여 추진코져 지난해 10월 15일 산지초지 10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91년도 까지 20만ha 초지를 조성하고 젖소사육두수를 60만두 수준까지 증식시켜 국민 1인당 우유소비량을 35~40kg수준까지 늘려 나가겠다는 내용이었다.

금년은 본계획의 첫해로서 초지조성사업을 성공위주로 대상지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완성주의로 추진할 것이며 최우선을 지난해 까지 조성한 전면적 우량초지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초지조성을 빙자한 투기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초지조성의 과열분위가 조성되어 82년 1월말까지 초지조성 신청면적이 265ha 인데 반하여 금년도 1월말까지는 19,500ha라는 80배에 가까운 면적이 신청되어 불가피하게 많은 계약을 하기로 하고 지난 2월 16일 발표를 하였든 것이다.

주요한 계약 내용은

◎ 83년도 초지조성 면적은 당초 정부지원 사업만 10천ha를 계획하였으나 자력초지를 포함시켜 각도별로 성공가능한 최소면적으로 특별계획을 수립추진토록하였고,

◎ 국공유지는 81년말이전 현지 거주자에 한하여 10ha 규모 미만으로 허가토록 하였으며,

◎ 사유지인 경우에는 82년 10월 15일 이전 초지조성대상지 소유자로 함으로서 더 이상의

과열된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였다.

물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새마을 지도자, 영농후계자, 고등학교이상의 축산학과를 전공한자에 대하여는 82년 10월 15일 이후에 초지조성대상지를 구입하였드라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기반구축사업중 중요한 것은 젖소의 증식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국내 우유생산 및 소비를 감안하여 젖소 10천두를 도입하여 농가에 분양하기로 하였다.

젖소의 도입은 임신우 5천두와 육성우 5천두로 구분하기로 하였으며 도입을 담당하는 기관별로는 축협중앙회에서 육성우 3,440두, 유업체에서 5,560두,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1,000두를 도입하여 농가에 분양토록 하였고 육성우는 두당 650천원, 임신우는 두당 1,350천원의 자금을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하기로 하였다.

분양대상 농가의 선정은 도지사가 실시하고 도입공급자에게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답이작낙농시범마을입식 대상두수 1,330두 이외에는 초

지 1ha당 2두이내에서, 입식토록 하였다.

도입젖소의 능력은 국내 젖소의 산유능력 향상과 개량면을 감안하여 어미능력이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13,000Lbs 이상으로 하였다.

나. 젖소 개량 사업

우유생산 및 번식능력등의 개선을 위한 사업은 젖소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방향을 설정할 시점에 와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82년도 후반기 부터 소값의 급상승세 유지에 따라 번식사업이 활발하여 지면서 젖소의 경우도 저능력우의 도태두수가 감소하고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정액부족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축협중앙회에서는 정액 20천개를 83년 2월에 수입하였으며 필요하면 추가로 더 도입하여 부족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우수한 종모우를 82년도 계획하였던 7두가 3月初에 국내에 도착하고 금년에는 32여두 정도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젖소의 능력 향상과 개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함은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사업으로서 계속하여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생각한다.

다. 학교 아동 우유 급식 및 소비 저변 확대 사업

학교 아동우유 급식 사업은 체위 향상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80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실시는 되었으나 좀더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이었다.

금년도에는 약 1일 160만명을 목표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군 급식도 작년 부터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1일 8만여개를 공급하고 있다.

사람의 식생활과 환경은 1~2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며, 성장하는 아동들의 체력 및 체위 향상도 1~2년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사업은 적극적인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유는 가장 신선한, 가장 소화가 잘되고 완전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자연 식품이며, 가장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식품인 것이다.

필자는 어느 선배 한 분과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1~2회 술을 할 때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곤 한다.

그 이유는 그 선배님은 낙농인으로서 반드시 약주를 하실 때에는 아무 말씀 없이 우유를 사오도록 하여 술과 우유를 섞어서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술도 덜 취하고 몸도 덜 괴로울 뿐만 아니라 위에 부담을 덜주므로서 건강하게 오래 즐겁게 살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술도 많이 마신후 다음날 아침에 우유를 마시면 몸이 개운하고 식욕이 나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필자는 위의 기능이 약해서 그런지 어느 식품이든 많이 잘 소화시키지만 우유는 일정량 이상 먹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소화 불량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불편할때 등 꼭 우유를 많이 먹어야 할 경우도 일정량 이상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식생활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필자와 같은 사람의 수를 줄이고 튼튼하고 건강한 국민이 되게하기 위하여 학교아동급식, 군급식등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모든 국민이 우유가 어떠한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홍보활동은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모든 낙농인 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우유를 먹을수 없는 경제적인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즉 필요시에는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우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련을 시키자는 것이다.

라. 낙농 경영 개선 사업

최근 몇년간 젖소의 가격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 가격이 높다보니 일부 낙농가에서는 저능력우의 도태가 거의 감소되어 우유생산 보다는 번식사업화 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반듯이 낙농사업이 계속하여 호황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호황이 계속한다 하더라도 경영 및 기술개선을 하면 그만큼의 소득증대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금년도에는 낙농가의 경영 및 기술개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물론 그방법은 경영 및 사육등의 전문기술자의 협조하여 지역별 강습회와 세미나등을 개최토록하고 필요시에는 개별농가를 시범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자 한다.

언제까지나 오늘의 낙농업 형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금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도시근교의 착유업을 위한 낙농은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생산비를 빠른 시일내에 낮추므로써 보다 가격이 저렴한 유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최소한의 시설투자와 노동의 절약 및 조사료 위주의 사육전환으로 젖소의 능력향상 및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경제수명의 연장등은 그 귀한 의화를 들여 도입하는 젖소를 잘 기르는 것은

국가전체적인 이익이며 국민된 도리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연구검토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언제인가는 어려운 시기가 올수가 있다. 이러한 시기를 대비하여 경영 및 기술 개선은 안전한 낙농을 유지토록 할 것이다.

마. 우유의 수급

금년도의 우유생산과 소비는 82년도에 비하여 13~1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비수기에 과다한 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범위내에서 조정코저 총생산량을 651천톤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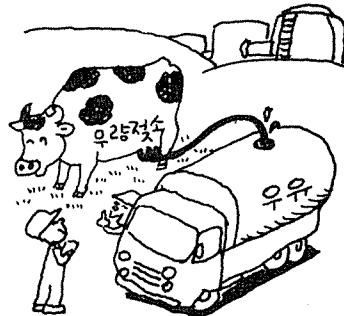
또한 지난해의 경우 아이스크림은 빙과류의 소비관계로 감소한 것과 같이 예측되며 기타 품목의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동향 및 기상조건 등에 따라 유제품의 소비는 크게 영향을 받게되므로 부족시에는 국내 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분유를 도입할 것이다.

82년의 경우는 분유 1500톤을 도입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현재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기반구축, 국민 체위향상과 보전을 위한 기여, 경영 및 기술개선에 의한 확고한 낙농발전기틀의 마련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반듯이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모든 국민이 우유의 진가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는 낙농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배 이상 많은 우유를 내는 젖소